

ちきゅうじんの詩
 わたしたちはみんなちきゅうじん
 みんな地球が好きで、地球人が好き。
 そして美しいものが好み、おいしいものを食べ、
 うれしい時、悲しい時、楽しい時、みんな同じだ
 そう、みんな家族だから
 みんな家族だから、助け合い、喜びを分かち合う
 たとえ横道に反れる兄弟がいても決して暴力で解決しようとし
 ちきゅうじんみんな家族だから
 最近拉致された国から帰ってきた家族を、国中で歓迎したように
 みんな大事な家族なんだ
 そう、ちきゅうじんみんな家族だから

特集：韓国特集

季刊紙/夏号 発行：藤井春子
 所在地：東京都大田区山王1-13-14
 発行部数：500部
 HPアドレス <http://www.chikyuuujin.org>



日比谷公園で行われたアフリカン・フェスタ
 ヒビヤ公園で 열린 아프리카 댄스

AFRICAN FESTA 2004

アフリカン・フェスタ

5月15日から16日にかけて、東京都内にある日比谷公園において、アフリカンフェスタ2004が開催された。外務省主催、駐日各国アフリカ大使館、東京都、千代田区、千代田区教育委員会が後援して行われた同イベントには各国の大使館がそれぞれのお国の名物を出品した。レクチャーコーナー、アフリカンフードコーナー、ワークショップなどが立ち並び東京の真ん中に突如アフリカが現れた2日間となった。小音楽堂ではアフリカ音楽の演奏、またアフリカ体験をして多くのインスピレーションを受けたというミュージシャン白井貴子さんが、アフリカバンドのメンバーと共に演奏。小雨が降る中ハートに訴えかける歌を披露し、日本人、アフリカ人が一つになるステージを作り上げた。その他NGO団体も多数出品し日ごろの活動を紹介する等、特に若者たちアフリカへの関心の高さを示していた。

The African festival 2004 was held Hibiya park in Tokyo on the 15th and 16th of May. It was managed by the Japanese foreign office, the embassies of different African countries, and the Tokyo and Tiyoda district along with its district educational office. Each embassy brought pieces to express their country's cultures.

There were Lecture sections, food sections, and work shops on African culture. It was like stepping through a portal to Africa for the two days the festival was held in the center of Tokyo. In a mini concert hall an concert of African music was held. Takako Sirai sang along side the African band; the experience was very inspiring for her. They created impressive music with such emotion that it filled the audience's heart as it did their ears. The concert was composed by Japanese and Africans working together. There were also many non-profit organizations at the festival displaying their activities to the crowds. All the non-profit organizations that were at the event showed us that many young people have a high interest in African culture.

5월 15일부터 16일에 걸쳐 동경 도내에 있는 히비야 공원에서 아프리카 댄스2004가 개최되었다. 외무성주최 주말 각국 아프리카 대사관, 동경도, 지요다구, 지요다구교육위원회가 후원하여 열린 동 이벤트에는 각국의 대사관이 각각 자기 나라의 명물을 출품했다. 레크처 코너, 아프리카 푸드 코너, 워크샵코너 등이 줄을 지어 동경 한가운데에 갑자기 아프리카가 나타난 2일간이 되었다. 소음악실에서는 아프리카 음악의 연주, 그리고 아프리카 체험을



アフリカのメンバーと熱唱する白井貴子さん
 아프리카 댄스와 열창하는 시라이 다카코씨



アフリカ各国の大使館が出品
 아프리카 각국의 대사관이 출품

하여 많은 영감을 얻었다는 음악가 시라이 다카코씨가 아프리카의 댄스 멤버들과 공연. 가는비가 내리는 가운데 마음에 호소하는 노래를 피로하여 일본인, 아프리카인이 하나되는 스테이지를 만들었다. 기타, NGO 단체도 많이 출품을 하여 평상시 활동을 소개하는 등, 특히 젊은이들의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보였다.

A French artist Mark Estel

マークエステル 神話の世界



マーク・エステル氏 마크 에스텔씨

フランス人の画家マークエステル氏は日本の古事記をテーマに数多くの作品を発表し、その作品は伊勢神宮、出雲大社など日本の神社にも数多く奉納されている。マーク氏が日本の文化に出会ったのは1970年万博の年に外交官として初来日したときであった。京都の清水寺に秘蔵されている水墨画の「にじみ」をみて衝撃を受け、油絵でそのにじみを表現したいという衝動にかられた。実業家の父親から画家になることを反対され、芸術家になることを断念していたマーク氏であったが、日本文化との出会い、岡本太郎氏等日本の芸術家との出会いが人生をかえてしまったという。

「神話」
 言葉と心象で思索するひとの
 理想は神を求めること
 神の形は種族によって異なれど
 善意と感謝はすべて一致する
 その心奥まで求めていけば
 驚くべし、何と似ていること！
 孤独な人々よ、自らの起源を気にかけるな
 おまえは世界の神秘を目前にして
 それとひとつになっていくのだ

マークエステル

A French artist, Mark Estel, has created many works depicting Japanese mythology called "Kojiki." Many of his works are presented in Izumo and Ise shrines. Estel had been touched by Japanese culture during his first visit to Japan as a French diplomat. He was impressed by one picture, "Nijimi," a white and black picture kept at Kiyomizu temple in Kyoto. He was inspired to draw "Nijimi" using oil paint. He had given up becomes as artist because his father had denied him. However, his life changed after experiencing Japanese culture and meeting Taro Okamoto and other Japanese artists.

Mythology
 Ideas of man, whose thoughts, words
 And images seek his God.
 Outwardly, each differ according to their ethnic thoughts,
 But all reconcile thanks to their universality.
 If we examine their hearts,
 Oh, surprise! How similar!
 Men, you are so lonely and remain true to form
 Regardless of your origin,
 You stand before the mystery of the world
 And you must attempt to unite.

프랑스인 화가 마크 에스텔씨는 일본의 고사기를 테마로 많은 작품을 발표하고, 그 작품은 이세신궁, 출운대사 등의 일본의 신사에도 많이 봉납되어 있다. 마크씨가 일본 문화를 만난 것은 1970년 만박의 해에 외교관으로서 처음 내일했을 때이다 교토의 청수사에 비장되어 있는 수목화의

「니지미」(번짐)를 보고 충격을 받아 유화로 그 번짐을 표현하고 싶다고 하는 충동을 받았다. 실업가의 부친으로부터 화가가 되는 것에 반대를 받고 예술가가 되는 것을 단념한 마크씨였지만 일본문화와의 만남, 오가모도 다로씨 등의 일본 예술가들과의 만남이 인생을 바꾸어 버렸다고 한다.

「신화」
 언어와 심상으로 모색하는 사람의
 이상은 신을 찾는 일
 신의 형태는 종족에 따라 다르지만
 선의와 감사는 모두가 일치한다.
 그 마음 깊은 곳까지 찾아가 보면
 놀람도다, 어떻게도 닮아 있는지!
 고독한 사람들이여, 자신의 기원에 마음 쓰지 마라.
 너는 세계의 신비를 눈앞에 두고
 그것과 하나되어 가고 있노라.

마크 에스텔



「おののгоро도의 탄생」 「淤能基呂島の誕生」

"Kakehasi No Kai", a group which visited Mr. Lee Syu Ken's hometown.

「架け橋の会」、 李秀賢さんの故郷を訪れる。

3年前にJR新大久保駅でホームから落ちた人を救うために線路に飛び降りて亡くなった、韓国留学生李秀賢さんを偲んで、架け橋の会が訪韓、李秀賢さんの墓をお参りした。「架け橋の会」の内山安之さんは事故の後、李秀賢さんにささげる歌「君を忘れない」をつくり、今も歌い続けている。今回の墓参りで李さんお墓の近くに、戦後日本に帰ることができず韓国で亡くなった日本の方々のお墓があることが発見された。一行は李さんのお墓と日本の方々のお墓の前に植樹をし、冥福を祈った。李さんのご両親は事故の後、世界から集まった1000万円のお見舞金をアジアから学びに来ている学生たちに全て寄付し、就学生（大学等に入学する前の日本語学校の生徒たち）の為に奨学金を支給するNPO法人エールエスエーアジア奨学金を設立した。李秀賢さんが果たしたかった日本との架け橋の役目を担っていくアジアの青年を援助することがご両親の生きがいとなっている。毎年行われる「日本語学校語学留学生の祭典」において、選ばれた学生たちに奨学金が授与されており、数多くの若者たちが希望をもって勉強に励んでいる。

Mr. Lee was killed by a train while helping another person who had fallen into train rail at JR Sinookubo station three years ago. Kakehasi No Kai visited Mr. Lee's grave in Korea to mourn him. A member of the group Mr. Yasuyuki Utiyama composed a song called 'Kimi wo Wasurenai' for Mr. Lee which they kept playing after the accident. The Kakehasi No Kai group found that graves around Mr. Lee's do not go back before WWII. They planted trees in front of the graves in memory of them. After the accident, Mr. Lee's parents established a NPO group named LSH Asia Scholarship which helps students study in Japan, the money to start the groups came to Mr. Lee's parents from all over the world. Mr. Lee's parents really love to help Asian students to be a bridge between Japan and Asian countries that Mr. Lee wanted to be the bridge for. Students who are chosen in Japanese exchange students festival every year are offered scholarships. There are many students studying Japanese with a lot of dreams which these scholarships can help make happen.

[가게하시(다리)회], 이수현씨의 고향을 방문.

3년 전에 신오쿠보역에서 홈에서 떨어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선로에 뛰어내려 사망한 한국인 유학생 이수현씨를 기리며 (가게하시회)가 방한, 이수현씨의 묘를 찾았다. 가게하시회의 우치야마 야스유키씨는 사고 후, 이수현씨에게 바치는 노래 (君を忘れない : 그대를 못 잊어)를 만들어 계속 노래하고 있다. 이번 성묘로 이씨의 묘 가까이 전후 일본에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사망한 일본인들의 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일행은 이씨의 묘와 일본인들의 묘 앞에 식수를 하고 명복을 빌었다.

이씨의 부모님은 사고 후 세계로부터 모인 1천만 엔의 위문금을 아시아에게 공부를 위해 와 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부하고, 취학생(대학등에 입학하기 전의 일본어학교 학생들)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NPO법인 LSH아시아장학금을 설립했다. 이수현씨가 다하지 못한 일본과의 다리 역할을 담당해 갈 아시아 청년들을 원조하는 일이 부모님들의 삶의 보람으로 남아지게 된 것이다. 매년 실시되는 (일본어학교 어학유학생의 제전)에 있어서 선발된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수여되고 있어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공부에 힘쓰고 있다.

日本人のお墓の前に慰霊の植樹をする李秀賢さんの御両親
일본인의 묘 앞에 위령의 식수를 하는 이수현씨의 부모님



이수현씨의 묘 앞에 식수하는 우치야마 야스유키씨
李秀賢さんのお墓の前に植樹する内山安之さん



李秀賢さんのお墓の前で御両親と 이수현씨의 묘 앞에서 양친과



日本に帰れなかった日本人達が眠るお墓
일본에 돌아가지 못한 일본인들의 묘



李秀賢さんへの思いを込めたメッセージ
이수현씨에 대한 마음을 적은 메시지



外国人の為の進学、就職相談が行われる 외국인을 위한 진학, 취학 상담이 열림



日本に留学してきた外国人の为のイベント 일본에 유학하러 온 외국인을 위한 이벤트

FROM NAGANO

長野県では、従来の生産振興中心の農業施策から一歩踏み出し、消費市場にターゲットを定めた独自のマーケティング戦略を推進し、信州農産物のブランド確立等を図ることを目的として、平成13年度から、玉村豊男氏及び田崎真也氏をあぐり指南役をお願いし、「信州農産物マーケティング戦略推進プロジェクト」に取り組んでいます。

この取り組みの一つとして、平成14年10月2日に、より高い品質の農産物及び農産物加工品を提供していくことで生産情報を消費者へ開示し、消費者の信頼を得ながら地域の振興を図ることを目的とした「長野県産地呼称管理制度」を創設し、まずワインと日本酒から制度をスタートしました。

この制度では、農産物の原料や栽培方法、飼育方法、味覚による区別化を行い「長野県で生産・製造されたもの」を自信と責任を持って消費者にアピール、消費者の信頼を得ながら生産者の生産意欲を更に醸成し、長野県産農産物のブランド化を目指しています。

4月10日から30日まで京王プラザホテルにおいて信州フェアが行われた。その間ロビーの装飾や、物産展、またレストランの中で信州の食材を使ったオリジナル料理を楽しむなど、新宿副都心にあり、高層ビル街の一角をなす同ホテルも違った彩をもった。

その信州フェアも終わりに近い27日、田中康夫県知事によるスペシャルイベントが行われた。「田中康夫のおすすめ料理」というタイトルで、ディナーショー形式で進められた。ゲストテーブルを飾ったのは全て長野産で作られたフランス料理とワイン。田中知事は長野ブランドの品質の高さをアピールする共に、県の条例で施行された原産地呼称管理制度を説明した。

その後3人が壇上に上がりテーブルに用意された料理とワインの補足説明があった。最初に壇上に上がったのは、京王プラザホテル総料理長の緑川廣親シェフ。長年高級なフランス料理一筋で生きてきた緑川シェフも長野の食材の素晴らしさを言及した。次にソムリエ高野豊氏とワインの開発者戸川英夫氏が長野のワインについて語った。高野氏はフランスが64年かけて作った味を長野県はわずか2年で同じ味を作ったことをかたり、戸川氏はもともと山梨県でワイン製造に携わっていたが、定年退職後も究極の味を追求し続けていたところ、長野の葡萄にであったという。お客さんはこの極上のフランス料理とワインで最高のディナーを楽しんだ。

ゲストにはデザイナーのコシノ・ジュンコさん、ステージで田中知事と食事しながらトークでわかせた。コシノ・ジュンコさんのご主人の鈴木弘之も壇上に上がり、挨拶。さらにソムリエ界の第一人者田崎信也さんとミス・ジャパンの嵯峨百合子さんが応援に駆けつけた。

閉会后、帰りの際に入り口で参加者全員に田中知事の名刺が配られた。田中知事は「ちなみに折りしるはついていません」などという、今だから言える軽いジョークも飛ばしていた。

Nagano prefecture is tackling what it calls "The Propulsion Project on Market Strategy for Shinshu Agricultural products".

In Nagano, emphasis used to be placed on increasing production. But now "better quality" is seen as more important. Since 2001, with Toyoo Tamamura's and Shinya Tazaki's help, Nagano has been trying to turn its agricultural products into a brand name. It is proceeding with its own market strategy that targets the consumer market.

On October 2, 2002, as one of its projects, it established a management system that highlights the place of origin, "Made in Nagano." It is actively promoting product information to consumers. And at the same time, it offers products of higher quality. The goal is to generate consumer confidence by promoting the Nagano community as a place where quality goods are produced. The campaign began with wine and Japanese sake.

What is important in this project is finding the way to differentiate the products of Nagano from those of other prefectures in terms of such characteristics as better methods of cultivation, breeding, and taste. By doing so, it is hoped that consumers will think of Nagano's products as reliable, trustworthy, and superior to those of other places. If this happens, it will increase manufacturers' motivation to produce more and better products. Nagano really wants to make its products appealing to consumers. The people of Nagano have confidence in what they make.

From April 10th to 30th, the Shinshu exhibition was held at the Keio Plaza Hotel. During this three-week period, there was an exhibition of products, and the hotel restaurant offered food made in Shinshu. Also, the lounge of the hotel was decorated. People passing by really enjoyed it. The hotel, which is nestled among skyscraper office buildings, gave people a different impression from the ordinary, highlighted as it was by the atmosphere of Shinshu, one of Japan's famous mountainous areas.

Toward the end of the program, Yasuo Tanaka, the governor of Nagano prefecture, held a special event on April 27—a dinner program entitled "The Governor's Favorite Cooking." All food and wine on the tables in the dining hall were made from Nagano products. Governor Tanaka made an appeal for the quality of Nagano products and explained its management system, which emphasizes the place of origin, "Made in Nagano."

After Governor Tanaka spoke, three people stepped up to the stage and spoke about the food and wine on the tables.

First, Mr. Hirochika Midorikawa, master chef at Keio Plaza Hotel, pitched Nagano's agricultural products, stressing their quality. Mr. Midorikawa is a long-time chef specializing in high-end French foods. Next, Mr. Yutaka Takano, a sommelier, and Mr. Hideo Togawa, a wine maker, spoke about Nagano wine. Takano said Nagano has caught up with France in the flavor of its wines. It took 64 years for France to create the fabulous flavor of its wines known worldwide today. But, Takano said, Nagano has duplicated the same flavor in just two years. Mr. Togawa was once a winemaker. After his retirement, he continued trying to make better wines. Finally, he found the best grapes for wine in Nagano. Those who



乾杯！

田中長野県知事



gathered in the exhibition hall enjoyed high-quality French food and flavorful Nagano wine. Ms. Junko Koshino, a designer who was a guest at this exhibition, made people laugh when she chatted with Governor Tanaka on the stage. Mr. Hiroyuki Suzuki, Ms. Koshino's husband, also came to this event and addressed the audience, as did Mr. Shinya Tazaki, one of the best sommeliers in the world, and Miss. Yuriko Soga, the current Miss Japan.

At the close of the event, Governor Tanaka handed out his name card to everyone who attended. Governor Tanaka said, "By the way, there is no ORISHIRO (to fold into two) on my name card." He was making a joke, referring to something that had happened earlier in the program. folded



折り紙を体験 色紙を集め 制作



日本の文化に触れるコーナー 日本の文化に接するコーナー

Ms. Tyon Wal Son's TV program and concert.

チョンウォルソン (田月仙) テレビ番組と公演のご案内

チョンウォルソンさんのドキュメンタリーがNHKで放送されます。

内容は今年2月28日に行われた20周年記念リサイタルを中心に彼女の人生をたどる番組です。90分ドキュメンタリーです。ぜひご覧ください。

日時：7月10日夜10時—11時30分 (90分)
NHK教育テレビETV特集
「海峡を越えた歌姫、在日コリアン声楽家の20年」

チョンウォルソン
在日コリアン声楽家。世界各国でオペラやコンサートに出演。1985年北朝鮮で独唱。1994年ソウル定都600周年記念オペラ「カルメン」(芸術の殿堂)主役。1998年東京ソウル市友好都市10周年記念で首都ソウルにて初めて日本語の歌を歌う。2002年ワールドカップ記念オペラ「春香伝」日韓両国主演。「小泉内閣総理大臣主催、金大中大統領歓迎公演」で独唱。サッカー日韓戦、韓国国歌独唱など。

Documentary about Ms.Tyon Wal Son will be on the NHK TV show.

The program is about her life and a 20 year-celebration concert held on feb,28th in her honor. This program is 90 min long. Please keep a look out for this program.

Time: July 10th. 10—11:30 PM
NHK ETV special
[Japanese Korean Vocalist's life of 20 years: Vocalist crossed the ocean between Korean and Japan.

Tyon Wal Son
Japanese Korean vocalist. She plays many operas and concerts all over the world. In 1985 solo concert in North Korea. In 1994 Seoul

had a celebration of the 600th year since it had become the capital of South Korea. They played in the opera 'Carmen' as main character. In 1998, Tokyo and Seoul city friendship held a 10 years ceremony in Seoul, she sang a Japanese song for the first time. In the 2002 World cup ceremony opera 'Syun Kou Den' directed by Korea and Japan. In the welcome party for Korean president Kim De Jyun by Japanese Prime Minister Jyuniro Koizumi, she sang solo. A Soccer game Japan Vs Korea, she sang the Korean national song.

[전월선(田月仙)]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공연안내

○ 전월선씨의 도큐멘터리가 NHK에서 방영됩니다.

내용은 금년 2월 28일에 있었던 20주년 기념 리사이클을 중심으로 그녀의 인생을 더듬어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90분의 도큐멘터리입니다. 꼭 시청해 주십시오.

일시: 7월 10일(토) 밤10시~11시 30분(90분)
NHK교육텔레비전 ETV특집
「해를 넘은 가수 재일코리안 성악가의 20년」

전월선
재일코리안 성악가. 세계 각국에서 오페라와 콘서트에 출연. 1885년 북한에서 독창. 1994년 서울 정동 600년 기념 오페라「카르멘」(예술의 전당) 주역. 1998년 「동경도와 서울시의 10주년 기념」으로 수도 서울에서 처음으로 일본어 노래를 부름. 2002년 월드컵 기념 오페라「춘향전」일본양국주연. 「고이즈미 내각총리대신주최 김대중대통령환영공연」에서 독창. 축구한일전에서한국국가독창등.



5月22日に行われた、セ・パラム合唱団の発表会 5월 22일에 열린 새바람 합창단의 발표회

石垣島の出身の三浦良子さんは15歳で東京に上京。4人兄弟の長女という責任感で、バイトで得た5万円のうち3万円を親に送りながら美容師を目指して勉強していた。24歳の時にお店を開いたが失敗。33歳の時にクモ膜下出血で倒れて、8ヶ月間話すことができなくなってしまった。回復後、普賢岳の爆発があり、被災地でボランティア活動しながら感じたのが「人間はお金ではない」ということだった。お弁当を売って事業を盛り返した三浦さんは歌舞伎町で沖縄の踊りを披露するお店を開き、新宿の観光コースの一つになるほど繁盛した。しかし、さまざまなトラブルに巻き込まれてたまたまざるを得なくなってしまった。人に何度もだまされ、裏切られる波乱万丈の人生を送る三浦さんは、それでも「人間が好きだから、人の為にやる」と言い切る。「とにかく人に喜んでもらえるのが私のモットー。それがそのまま「ふるく」として返ってくる。望んでも返ってこないし、作ったものでは返ってこない。」沖縄亭ではほとんどの料理を400円で出しており、その日その日の沖縄料理を中心にした手づくり。お勧めは《ウコンジュース》生ウコン、アロエ、にがうり、りんご、にんじん等の入ったミックスジュース。見た目は苦そうに見えるが飲んでみるとおいしく、体全体に栄養が行き渡る感覚がする。「義理と人情があればお店はできます。儲け主義は性に合いませんので、大きなお店はできませんね」と語る三浦さん。病気をしたことによって、生かしてもらっていることを体験した三浦さんは離婚したカップルを再婚させる不思議な力を持っている。「離婚する人たちは与えていません。求めてばかりだと不満ばかりになる。心は愛でしか治らないですね。」沖縄の「お母さん」が待つお店に、沖縄料理を食べながら、悩みを打ち明けにくるお客も多い。

Ms. Miura was born in Isigaki. She moved to Tokyo when she was 15 years old. She was the eldest of 4 sisters and brothers so she felt a big responsibility. She was sending 30000yen to her parents from her 50000yen salary. She was studying to be a hair dresser then. She opened her shop in the age of 24 but she had close it. She had Subarchnoid hemorrhage when she was only 33 years old. She could not speak for 8 months. After being cured of the illness, Mt. Fugen erupted; she was doing volunteer activities to help evacuated the people in the surrounding area. She realized money is not everything. She began her business to sell a lunch box. After she got enough funds, she opened a restaurant in with entertaining Okinawa Dance in Kabuki Tyo. It had run so well and became one of sight seeing points, but she ran into big problems and needed to close the restaurant. She says proudly I like people so I work for people even she was betrayed many and many times. My motto is to make people be happy and it gives me a small present; and those always come under the fate. In Okinawa Tei, most dishes serve for 400 yen. All the dishes are Okinawa's daily food. She cooks every food. The recommended is Turmeric Juice. It contains, raw turmeric, aloe, bitter Uri, apple, and carrot. It looks so bitter but very delicious. It has a great nutritional value. She says 'You can open business if you have a warm heart and mind. I do not care about earning a lot, so I can not open a bigger restaurant.' She had experienced living through her illness and has the power to fix a divorced couple. She says 'People who divorce, they don't help each other. If you just seek everything you become unsatisfied. Problems of the heart can be cured by only with a lot of love.' Many people visit her restaurant to eat and to talk to mom of Okinawa.

시주꾸에서 오끼나와를 전해 온 25년, 미우라 료코씨

이시가지지마(石垣島) 출신 미우라 료코(三浦良子)씨는 15세에 동경에 상경. 4명의 형제자매의 장녀라고 하는 책임감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5만 엔 가운데 3만 엔을 부모에게 보내면서 미용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했다. 24세 때에 가게를 시작했지만 실패. 33세 때 구모마카(지주막)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고 8개월간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회복 후, 무엇 때문에 살려 주었는가를 생각하기 위해 普賢岳의 폭발이 있었던 피해지에서 봉사활동을 하였는데 거기에서 느낀 것이 인간의 삶은 돈이 아니다 였다 한다.

도시락을 팔아 사업을 키운 미우라씨는 가부끼町에서 오끼나와의 춤과 노래를 피로하는 가게를 열어 신주꾸의 관광 코스의 하나가 되기까지 번창했다. 그러나 수많은 문제에 부딪혀 그만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속고 배반당하는 파란만장의 인생을 보내는 미우라씨는 그래도 말한다. '사람이 좋으니까 사람을 위해서 해요. 어쨌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모토(좌우명). 그것이 그대로 복이 되어 돌아오지요. 바라면 돌아오지 않고 만든 것으로는 돌아오지 않아요?'

오끼나와정(沖?亭)에서는 오끼나와 소바 이외에는 거의 요리를 400엔에 내고 있고, 그날 그날 오끼나와 요리를 중심으로 한 손요리. 권하는 요리는 우꿍쥬스. 생우꿍, 알로에, 니가우리, 사과, 당근 등이 들어간 믹스쥬스. 보기에 쓰는 보이지만 마셔 보면 맛이 있고 몸 전체에 영양이 미치는 듯한 감각을 느낀다. '의리와 인정이 있으면 가게는 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벌기주의는 성격에 안 맞아서 큰 가게는 못 해요?' 라고 말하는 미우라씨. 병치레를 경험함으로써 해서 산다고 하는 것을 체험한 미우라씨는 이러한 커피를 재혼시키는 신성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혼하는 사람들은 서로 주고받지 않아서 그래요. 받으려고만 하면 불안만 생기기지요. 사랑으로 상처받은 마음은 사랑으로밖에 안 낫지요?' 라고 한다. 오끼나와의 어머니?가 하는 가게에 오끼나와 요리를 먹으면서 고민을 털어놓고 싶어서 오는 손님들도 많다. (본점의 오끼나와 요리점은 많은 매스콤에 소개되는 실력 있는 요리점이기도 하다)

People

沖縄亭を経営する三浦良子さん
お끼なわ정을 경영하는 미우라 료코씨



Ms. Miura Ryouko has shown about Okinawa in Sinjyuku, Tokyo for 25 years.

新宿で沖縄を伝え続けて25年、三浦良子さん。

가게 앞에 진열된 직접 만든 오끼나와 요리
店頭に並ぶ手作りの沖縄料理



健康ウコンジュース 건강우꿍쥬스

Foods

There is great sadness in a family which is separated. This is the story that has plagued Korea in the past and is now happening again.

今も続く新たなる離散家族の悲しみ

韓国からサハリンに強制連行され、炭鉱や軍事施設で酷使され、終戦後も韓国に戻ることができずにごろごろしていた人々が、約4万3千人いた。日本人と、日本人を妻にもつ朝鮮人1,000人が日本に帰国できたが、ほとんどの朝鮮人はそのままサハリンに置き去りにされた。ペレストロイカまでは韓国とソ連の国交が無かったので、韓国に残された家族とサハリンの夫が連絡を取りあうことすら難しい環境。今の北朝鮮と日本と同じような状況にあったのだ。ペレストロイカによって、家族の一時再会がサハリン、韓国の双方から同時に訪日するという形で実現可能となった。そして、その後サハリンから韓国への直接の出国が可能となり、日本政府の出資で韓国への定期直行便が運行されるようになった。その後永住帰国が可能となり、日本政府が安山市に永住帰国者用のアパートと仁川市に療養院を建設。約1,500名の人々が永住帰国した。しかし収容施設不足の為、約3,000名の人々が今も、サハリンで永住帰国できる日を待ち望んでいる。日本政府が責任をもつと公認したのは1945年以前に出生した人で永住帰国が可能となったのは、老夫婦のみ。サハリンで生まれた2世、3世たちは対象外だ。ゆえに新たなる離散家族が生じるという状況が生じてしまった。帰国した老夫婦には日本円で約7万5千円の生活費が支給されるが、働いて収入を得ると生活費が削減されるので、働くことはできない。かといって、その少ない生活費から自由にサハリンまで行く飛行機代を作り出すことは不可能だ。今年6月から3回にわたって日本赤十字社の出資でサハリンへの逆訪問が実現されることになった。約400名の永住帰国者達がサハリンに住む子供たちに会いに行くことになっている。

There is great sadness in a family which is separated. This is the story that has plagued Korea in the past and is now happening again.

There were 43000 people in Sakhalin who were abducted from Korea and labored in a coal mine and a military factory; they could not return to Korea after the WWII. Japanese and 1000 Koreans who have wives of Japanese could go back to Japan but most of people were left in Sakhalin. Until Perestroika there was no relation between Korea and Soviet Union so it was difficult for people in Sakhalin and their families in Korea to contact each other. It was the same as it is now happening in Japan and North Korea. They could meet in Japan after Perestroika and it became possible to visit to Korea from Sakhalin. Japanese government established air plane lines between Sakhalin and Korea and it became possible for people in Sakhalin to live in Korea now without any problems. Japanese government built an apartment in Ann San City and a hospital in In Tyon city for the 1500 people who came back to Korea from Sakhalin. There are still 3000 people waiting to come back to Korea in Sakhalin but there are not enough housing. Japanese government admitted responsibility people who were born before 1945 so that people were able to go back to Korea who are aged. Nisei and Sansei cannot go back to Korea who were born in Sakhalin so their families remain apart. About 75000 yen are paid to people who come back to Korea but if they earn money, the Japanese government decreases the amount of payment. It is impossible for them to buy a ticket to Sakhalin from that small amount of money. About 400 people will visit Sakhalin from Korea to meet their families who are helped by Japanese Red Cross. Visiting will be done three times from this June.

지금도 계속되는 새로운 이산가족의 슬픔

한국에서 사하린에 강제 연행되어 탄광과 군사시설 등에서 혹사 당하고 종전 후에도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살던 동포들이 약 4만 3천명이 있다. 일본사람과, 일본사람을 부인으로 갖고 있는 한국동포 1000명만이 일본으로 귀국할 수 있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한국동포들은 그대로 사하린에 남겨지게 되었다. 페레스트로이카 전까지는 한국과 소련의 국교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 남겨진 가족과 사하린의 남편이 연락을 주고받는 일조차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의 북조선과 일본과 같은 상황에 있었던 것이다. 페레스트로이카로 인해 가족의 일시적인 재회가 사하린, 한국 쌍방에서 동시에 일본으로 방문한다고 하는 형태로 실현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 사하린에서 한국으로 직접 출국이 가능케 되어 일본정부의 출자로 한국과의 정기 직행편 비행기가 운행되게끔 되었다.

그 후, 영주 귀국이 가능하게 되고 일본 정부가 안산시에 영주 귀국자용 아파트와 인천시에 양로원을 건설, 약1500명이 영주 귀국했다. 그러나 수용시설 부족으로 약3000명이 지금도 사하린에서 영주귀국 할 날을 고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고 공인한 것은 1945년 8월 이전에 출생한 사람들로 영주귀국이 가능한 노부부뿐, 사하린에서 태어난 2세, 3세들은 대상외다.

따라서 새로운 이산가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귀국한 노부부에게는 한국 정부로부터 일본 엔으로 7만 5천 엔의 생활비가 지급되지만, 일을 해서 수입을 갖게 되면 생활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일도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적은 생활비로 자유로이 사하린까지 가는 비행기요금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금년 6월부터 3회에 걸쳐 일본 적십자사의 출자로 사하린 방문이 실현되게 되었다. 약400명의 영주 귀국자들이 사하린에 사는 자녀들을 만나러 가게 되어 있다.

대구에 있는 대창양로원 대邱にある大昌養老院



사하린에 남편을連れていかれ、残された妻。現在も生活苦を強いられている。サハリンに 남편을 끌려 보내고 남은 처



「故郷の家」の中庭で談話する永住帰国者 「고향마을」의 마당에서 담화하는 영주귀국자들



安山市に日本政府が建てた「故郷の家」 안산시에 일본 정부가 세운 「고향의 집」

일본어, 한국어, 러시아어를 말하는 바이링갈한 분들이기도 함 日本語、韓国語、ロシア語を話すバイリンガルな方々でもある

영주귀국자 노인회 회장 고창남씨 永住帰国者老人会会長 高昌男氏



게임이나 텔레비전을 즐길 수 있는 오락실 게임やテレビを楽しめる娯楽室



Japanese and Korean feminine relation association 27th conference. At Shiba park hotel.

日韓、韓日女性親善協会 第27回合同総会開催 @芝パークホテル

日本と韓国の関係が難しかった時代から両国の架け橋となるべく始められた日韓、韓日女性親善協会が今年で27年目を迎えた。相馬雪香名誉会長、故朴貞子会長が始めた女性同士の交流は、年月を重ねる中で確実に多くの影響を及ぼし、実りを結び、2002年のワールドカップという日韓関係に大きな転換期を迎えるにいたった。現在、初代会長相馬雪香氏から森山真弓会長にバトンが渡され、5月26日、都内の芝パークホテルに於いて第27回日韓、韓日女性親善協会合同総会が開催された。森山会長は「韓国と私」と題する講演を行い、自らの韓国訪問の足跡、国家と国家の交流に責任を持つ立場として尽力してこられた思いを語った。韓国から来日した、韓日親善協会の李堯植会長は日本語で祝辞を述べその流暢な日本語に感嘆の声があがった。日本と韓国を代表する女性リーダー達の交流に、今後の両国の未来がかかっている。

From the time of difficult rel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Japanese and Korean relations associations started to be a bridge for both countries and it has been around for 27 years. Souma Yukika emeritus president and the last Pak Sadako president started feminine relations and it gave influenced a lot. It helped both Japan and Korea to change for the better and they held the World cup 2002. Now, Moriyama, Mayumi's second president is in office. The 27th Japanese and Korean feminine relation association conference was held at Shiba Park Hotel On May 26th in Tokyo. Ms Moriyama gave a speech titled 'Korea and Myself'. She spoke about her experience visiting Korea and her responsibility working between the two nations. President Lee Gyo Shoku of the Korean and Japan relation association visited Japan from Korea and gave a speech in Japanese. People were amazed by her fluently Japanese. The future of Korea and Japan is on the shoulders of those feminine leaders.

日韓女性親善協会名誉会長 相馬雪香氏と韓日女性親善協会会長 李堯植氏
 日韓女性親善協会名誉会長 相馬雪香氏と韓日女性親善協会会長 李堯植氏
 日韓女性親善協会名誉会長 相馬雪香氏と韓日女性親善協会会長 李堯植氏
 日韓女性親善協会名誉会長 相馬雪香氏と韓日女性親善協会会長 李堯植氏



「韓国と私」と題して講演を行った森山真弓会長
 「한국과 나」를 주제로 강연을 하는 모리야마 마유미 회장

일한 한일여성친선협회 제27회 합동총회개최

장소: 시바파크호텔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어려웠던 시대로부터 양국의 다리가 되겠다고 시작된 일한, 한일여성친선협회가 금년으로 27년째를 맞이했다. 소마 유끼카(相馬雪香) 명예회장, 고 박정자 회장이 시작한 여성들의 교류는 세월을 더하는 가운데 확실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열매를 맺어 2002년 공동월드컵이라고 하는 일한 관계의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하는 데 이르렀다. 현재, 초대회장 소마 유끼카씨로부터 모리야마 마유미회장에게 바통이 넘겨져, 5월 26일, 도내의 시바 파크 호텔에 있어서 제27회 일한, 한일 여성친선협회공동총회가 개최되었다. 모리야마 회장은 「한국과 나」라는 주제의 강연을 하고, 스스로의 한국방문의 발자취, 국가와 국가의 교류에 책임을 갖는 입장에서 진력해 온 생각을 말했다. 한국으로부터 내일한 한일여성친선협회의 이소식회장은 일본어로 축사를 하고 그 유창한 일본어에 감탄하는 소리가 울렸다. 일본과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리더들의 교류에 금후의 양국의 미래가 걸려 있다.



Yosuke KUBOZUKA



去年の5月18日にドキュメンタリー番組をやったんですけど、H₂Oの水の波動の研究をしている日本勝教授のところに水の実験の実験をしに行ったんですけど、「ありがとう」と感謝の言葉をかけた、ポジティブな波動を込めた水と、「馬鹿野郎」とか「死ぬ」とかのネガティブな思いの波動をこめた水と一緒に2時間くらい凍らせて、とけはじめの極わずかな間に結晶ができるんです。結晶というのは、六角形をしていて花みたいにきれいで、人間と同じように同じものが一つもないんです。そしてポジティブな波動を送った水とネガティブな思いを送った水は、はっきり違いが出たんですよ。ポジティブな方はきれいな六角形の結晶になる可能性が非常に高いし、逆にネガティブな方は崩れていたり、結晶になっていなかったり、形的には気持ち悪い。これは家でも実験できるんですよ。炊いたごはんを保存することで、是非家で実験してみてください。

僕はこれを通して確信したことがあるんです。思いというものは通じるんだなあということ。仕事のインタビューなんかで、僕は話が下手でうまく通じないところがあるんです。でもいつも思いは通じていることが多いんです。この水の結晶の話聞いたとき、これだと確信しました。

地球も体も70%は水でできている。だから環境でも人でも自分の思いというものは必ず通じるんだということです。言葉の「言」と霊魂の「霊」と書いて「言霊」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が、言葉、つまり言葉が宿っている「魂」というものは波動なんだろうなあと思っています。いい言葉を使っていればいい世界になると思うし、逆に悪い言葉を使っていれば悪い社会にならざるを得ないと思いませんか？いい言葉は自分自身を良くすると同時に、周りの人や環境にも良い影響を与えるし、悪い言葉は自分自身を汚すのと同時に、周りの人や環境にも悪い影響を与えるんじゃないですか？それは皆さんも実感している人が多いのではないですか？

たとえば天気がいい時、「素晴らしい日になりそうだなあ」と、いい言葉かけてあげれば、清々しい気持ちになって「今日1日がばらう」という気が沸いてくるし、何も言葉をかけなければ、心には何の変化もないと思う。

全てが鏡写しになっていて、周りがきれいだったら心もきれいな証拠だし、何にも感じない人もいるし、悪く感じれば「悪」。言い換えれば、悪と思う心が「悪」。

昨年ドラマに会った時、意識し始めたのですが、宗教と科学の統一です。心の世界と外の環境はつながっていて、環境は全て自分が作っているんです。自分が変われば環境も変わる。全てが環境だけ、それが別の言葉に置き換えることもできると思うんですよ。「愛」とか「神様」とか、この前ドラゴンボールを1巻から44巻まで一気に読んだんですが、悟空という人は凄いですね。悪いやつを皆自分の味方に変えてしまうのですから。

話は外れけど、それを知っているだけでベースが変わる。それをみんなが知っていて、常に自分がポジティブであれば、自分の環境はどんどんよくなっていくし、それをみんなで共有できればどんどんよくなると思います。相乗効果です。

無理に一つにならなくてもいい。もともとひとつだから。離れてもみんな一緒、それが当たり前ようになっていたら、悪をきるとか、あいつの考え方をかえると、そうおもうのではなく、足をひっぱっている人たちに大して感謝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る。どんなものでもいいところはあはる。

今テロなど悪いことがおこっているけど、反省材料もある。テロやそれ以外の悪い出来事も受け止めないのではなく、それを一旦ポジティブに受け止めた上で、次はどう前進していくか、みんなで考えた方がいい。

From the time of difficult rel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Japanese and Korean relations a I was involved in a TV documentary program in last may. This was a program which introduced professor Masaru Emoto's study. He studies how the shape of crystal of water is made, comparing the shape of crystal of two kind of water. One is spoken with with positive words. Other water is spoken with negative words. At his laboratory, We tried this same experiment.

To start with, We prepared two types of water. One is water which I spoke to with a positive word "thanks". Another is water which I spoke to with the word like "demmm" or "go to hell". Then we put these two types of water in freezer. After two hours, we took these out from the freezer. And then, a few moment of the very beginning of melting, We can see crystals in those ices. A crystal shapes a hexagon, and is beautiful like flower.

They are not same each other. The shape of every each crystal is only one thing. Just like we are not the same each other and each human being is only one.

Surprisingly, there was definite difference between crystals which I speak the positive or good words to, and crystals which I speak the bad or negative words to. Good hexagon shape crystal is made more likely from the water that we spoke good positive word with. On the other hand, the shape of crystal from the water that we spoke negative words with is bad, or did not even make a shape. I heard that you can try this experiment at your home. In case you do at your home, You use boiled rice instead of water. or try.

Through this experience, I convinced that thought or emotion works to the other things or peoples. In my experience, In interview, I cannot talk well with interviewee. I am poor at talking in such a situation. But, what I want to say was somehow understood by interviewee. I have been wondered why he or she can understand what I want to tell with my little words. The key is my mind. That was the answer I reached from the experience of the experiment of water crystal. 70 percent of Our planet is covered by water. And 70 percent of human body is water, right? So, I believe that mind or thought works to environment and therefore to people.

In Japanese, we have the word "kotodama" which means "spiritual power or spiritual existence of words". I think, this "kotodama" is same thing as a wavy motion of water that makes crystal of water.

If you use good words, our world become good world. Contrary, if you use bad words, our world would become bad society, bad world. Don't you think so? Good words makes us good condition. At the same time, good words you say give people or environment around you good influence. Bad word makes us bad condition. At the same time, they spread out bad influence. I think many people are aware of it already, through their experience. In the fine morning, For instance, you say "It going to be fine day today!", then you really feel fine, and you also would feel like "Lets hang on today!" in your mind. If you say nothing, you cannot feel such a good feeling. You feel nothing.

Everything is a mirror of your mind. If you feel your surrounding is good, beautiful or fine, then it is evidence of you have a good, beautiful mind. Some people don't care about their surrounding, don't feel nothing whatever their environment is. And, if you feel your environment is bad, that is evidence that your mind is something wrong. In other words, the thought of "my environment is bad" means you are bad.

Last year, I met Dalai Lama. From then, I started to think that it is important that religion and science should unite, should be one. Why is Because, spiritual world and outer material world or environment links each other. Our mind constructs our environment. So, our environment would change when our mind change. In a sense, Our Environment is everything for us. We can substitute it by other words, like "love" or "God". Our Environment is reflection of everything of our mind.

By the way, Few days ago, I read a comic book. The title is "Dragon Ball". This comic books has 44 volume, I read all volume at a sitting. A good point of this comic book is this. "GOKU" a hero in this story changes his enemy to his friend or ally with his good character or ability of communicate with people. To know about like this and make being positive is very important to our life. If we do this, our environment would more and more be good. Of course, if many people could have such idea, the world would be good even more. That's a multiplication.

We don't need to feel pain to be one. Why is because, We are one already from the very beginning. It is important that we think like "We are one, even when we are not same place." This thought should be the idea of everybody. I think it is not good idea to get rid of the evil or bad molecules, or to change ones way of thinking or idea to another by force. We have to feel even thanks to people against us. Everything has good point in it.

Today, in this world, we see such a terrible reality, like a war, terrorist attack. Terrorism is evil from the point of view of today's world, but that also gives us hints that we may need to reflect on today's world and ourselves. We should grasp the meaning of such a negative occurring in the world to build future of us, and to consider what action we should take next.

わかりやすい経済講座

経済は生き物です。この生き物である経済のダイナミクスを反映し、それだけでなくその時々^の社会状況、政治所^を織り込みながら変動するのが、株式市況です。ですから、株式の世界を勉強し、株価の変動を予測することは、社会的な事件から有力政治家の発言にいたるまで広範に勉強しなければならない、非常に知的なゲームでもあります。この知的なゲームの世界を皆さんとともに、少しのぞいてみたいと思います。

そのゲームの勉強に入る前に、一つだけ心構えを述べます。それは、株式市況の世界は、知的なゲームであるとともに、現実に非常に大きな利益を得たり、損失をこうむったりする、いわば自己責任の原則が求められる世界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有名評論家の推測、あるいは新聞の予想、その他いろんな情報の飛び交う中で、最終的に投資の判断を下すのは自分自身であり、利益を得るにしても損害を被るにしても、それは他人のせい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しっ

かり胸に銘記しておいてください。

景気回復が本調子であるのかどうか、小泉改革が功を奏しているのかどうかは異論があるところですが、このところの日経平均の動向を見た限りでは、12,000円の大台に近づきつつあるようです。こうした傾向が続くのかどうか、その見方を勉強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

さて、株価の動向をみるにあたって、勉強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理論です。いわゆるテクニカル分析、ファンダメンタル分析と呼ばれるものです。が、その前に、そのために必要な小道具を少し紹介しましょう。

まず、株式の相場が今基本的にどういう状態にあるのか、その情報収集に便利なものとして、筆者は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しています。ヤフーファイナンスのホームページでは、株式新聞社その他の株価情報が詳しく掲載されています。その情報は個別銘柄の動きから、相場全体の動きにいたるまで網羅されていて、市況が把握しやすい

利点があります。他に日経ネットなどもN Y株式市況が数時間の差で入ってくるので、要チェックです。

次に株価分析のソフトを準備しましょう。ベクターや窓の杜など無量ソフトの配布ページからアルファチャート、若しくはzチャートb bでも結構ですが、フリーソフトのチャート分析ソフトをダウンロードしてパソコンにインストールします。

これで大体小道具はそろいます。あとは実際に株の取引を行うには、オンラインで証券会社のホームページにアクセスして、インターネットトレーディングの申し込みをする必要があります。しかし、初心者は実際の取引に入る前に、まず「野村のバーチャル株式投資クラブ」等のオンラインゲームで株式投資の感覚をつかんでおくのがいいでしょう。次回からいよいよ株式市況の見方などに入っていきます。

筆者：原田和彦

安心有利な資産運用を探しているあなた！

当社はあなたの資産運用を
的確な情報提供でサポートします

<http://www.t-invest.net>

初心者の為の株式投資実践講座受講者募集中!

詳細は上記H・P又はFAX情報サービスまで。電話によるお問い合わせは御遠慮下さい。

東京インベストメント・パートナーズ株式会社

〒104-0031 東京都中央区京橋2丁目5番22号キムラヤビル2階

代表 03-3538-1525 FAX 03-3538-1526

キム・シン シンセサイザーシンフォニー

「音楽で地球を丸ごと包みたい」

■プロフィール

「音楽で地球を包みたい」という壮大なスケールで活躍する作曲、兼シンセサイザー奏者。大陸を父に、島の風を母に持つ自らを「在日地球人」と称し'91年より心と体の平安を願い、オリジナル作品を創り始める。'94年よりコンサート活動を開始。'94年ファーストアルバム「海神」を発表以降「久遠の宇宙」「地球まほろば」「ESPERANZA～希望～」をリリース。2000年10月第2集アルバム「久遠の宇宙」若田光一宇宙飛行士と共にスペースシャトル、デイスカバリー号で12日間の宇宙飛行を実現。帰還後NASAより飛行証明書添えて返還された。2001年、2002年、ネパールの人身売買を阻止するNGO「マイティ・ネパール」に訪問し、演奏する。2004年1月、アメリカ フロリダ州のギブ・キッズ・ザ・ワールド（世界中の難病の子供達とその家族を招待する夢の施設）に訪問し奏でる。又NASAケネディー宇宙センターを訪問し、コロンビア号STS-107の宇宙飛行士達へレクイエムを奏でNASAより感謝状を拝受。命にそっと寄り添い慈しみあふれるキム・シンの音楽表現は全ての言語を越え、あまりにも素直に飛び込んできて思わず涙をさそう。

“I want to wrap up the earth with music.”

■Profile

He says “I want to wrap up the earth with music.” He composes and plays a synthesizer. He says “My father is the earth and mother is wind from Ireland. And I am a man of the earth in Japan.” He began to compose songs in 1991 to wish peaceful a mind and body. He has been doing concerts since 1994. He made his first album “Kai shin” in 1994 and after that he released “Kuon No Utyu,” “Tikyū Mahoroba” and “ESPERANZA Kibou”. Second album “Kuon No Utyu” experienced space flight with the astronaut Kouiti Wakata on the space shuttle Discovery in October of 2000. After 12 days traveling, the album was sent back from NASA with a travel certificate. He joined a NPO group “Mighty Nepal” and played music for anti-human merchandise. He visited to play music for “Give Kids the World” which is a hospital for Kids who have disabilities and diseases that are difficult to cure which is located in Florida, USA. He played a requiem for suffered crews of the Colombia STS-104 in NASA's Kennedy Center with much appreciation by NASA. Kim Sinn's expressive and sympathetic music touches people's hearts all over the world without any language.

김.신 신시사이저 심포니

「음악으로 지구를 통째로 휘감고 싶다」

■프로필

「음악으로 지구를 휘감고 싶다」라고 하는 장대한 스케일로 활약하는 작곡 겸 신시사이저 연주자. 대륙을 아버지로 섬의 바람을 어머니로 가진 자신을 ?재일지구인?이라고 칭하며, 91년부터 마음과 몸의 평안을 바라고 오리지널 작품을 만들기 시작함. 94년부터 콘서트 활동을 개시. 94년 퍼스트 앨범 「海神」을 발표한 후, 「영원의 우주」 「지구 마호로바」 「ESPERANZA~희망~」 발표. 2000년 10월 제2집 앨범 「영원의 우주」는 와카다코이치(若田光一) 우주비행사과 함께 스페이스 셔틀 디스커버리-호로 12일간의 우주비행을 실현. 귀환후 NASA로부터 비행증명서를 붙여서 반환되었다. 2001년, 2002년, 네팔의 인신매매를 저지하는 NGO 「마이티 네팔」을 방문하여 연주함. 2004년 1월, 미국 플로리다주의 「기브 깃즈 더 월드」(전세계의 난병을 가진 아이들과 그 가족을 초대하는 꿈을 시설)을 방문하여 연주함. 또 NASA 케네디 우주센터를 방문하여 콜롬비아호 STS-107의 우주비행사들을 위해 레크イエム을 연주하여 NASA로부터 감사장을 받음. 생명에 살짝 다가가게 하는 귀여움 넘치는 김.신의 음악표현은 전체 언어를 넘어 너무도 순수하게 파고들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온다.

케네디어 우주센터에서,亡くなった 우주飛行士の為に演奏する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연주하는 김.신씨

キム・シンさん
김.신씨



スペースシャトルで宇宙を一周したCD 스페이스 셔틀에서 우주를 일주한 CD



【 INTERVIEW 】

7月4日浜離宮朝日ホールにおいて、「李秀賢さんの生き方を考える会」主催で「命と音チャリティーコンサート」が開催される。出演者のキム・シンさんにインタビューを行った。

キムさん御自身は李さんの事故のニュースを聞かれた時にどのように感じられましたか？

キム: 「初めてニュースを聞いた時、韓国人留学生在が日本人を助けようとして亡くなったという報道が流れたのですが、僕自身はこの国の人ということではなくて、「人が人としてとった崇高な行為だっ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捉え方をしたというのが、正直な気持ちです。」

「命と音」というテーマで昨年のコンサートにも出演されましたが、今年のコンサートにはどのようなお気持ちでのぞまれますか？

キム: 「命と音」、初めての出演の時と変わらぬ、大事な思いで望みたいと思っています。そして李秀賢さんに対する主催者の思い、御両親の思い、このニュースに接した多くの人達の思いを代弁するような気持ちで、また今この時代に「命」というテーマを私自身になげかけられたように、「命と音」を奏でられたらと思っています。

■

There is a charity concert by a group named "Think How Lee Syu Ken Lived" at Hamarikyu Asahi hall on the 4th of July. Kim Sinn played in the concert and we asked his about Mr. Lee.

Kim : When I heard the news for the first time the broadcaster said a Korean exchange student passed away to help the Japanese. I, myself understand honestly that it is not a point of the ethnic group, it is a point of sublime actions as a human being.

■

7월 4일浜離宮朝日ホール에서 「이수현씨의 삶의 방식을 생각하는 모임」 주최로 「命과 音의 차리티 콘서트」가 개최됨. 연주자 김.신씨를 인터뷰함.

김.신씨는 이수현씨의 사고 뉴스를 들었을 때 어떻게 느꼈습니까？

김: 처음으로 뉴스를 들었을 때, 한국인 유학생이 일본인을 구하려다가 사망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저 자신은 어느 나라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취한 숭고한 행위가 아닌가」 하는 식의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 정직한 표현일 겁니다.

「命과 音」이라고 하는 테마로 작년 콘서트에도 출연하셨습니다만, 금년 콘서트에는 어떠한 마음으로 임하실 생각이십니까？

「命과 音」, 처음 출연했을 때와 변함없는, 소중한 마음으로 임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현씨에 대한 주최자의 생각, 부모님의 생각, 이 뉴스를 접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命」이라고 하는 테마를 나 자신에게 먼저 주었던 것처럼, 「命과 音」을 연주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